2019-2학기
인문과학대학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창작(한글) 부문

지하련

池河蓮

이름: [redacted]
학과: 중어중문학과
학번:1720[redacted]
제출일: 2019년 11월 22일

*기울임체= 일본어

** 필기체= 지하련의 실제 글

씬 1. 작업실 / 낮

편지를 쓰고 있는 한 사내의 뒷모습, 연인에게 보내는 것인지 미소를 머금고 한 자 한 자 써내려 가는 손길이 정성스럽다.
남자가 쓰고 있는 편지 클로즈업.

나는 진정 네가 조타! 웬일인지 모루겟다. 네 적은 입이 조코, 목들미가 조코, 볼다구니도조타!

이 상(李 相)

다시 남자의 얼굴로 시선을 옮기면, 남자가 아닌, 여인이 방금 전 남자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쓰고 있다. 실내가 어두워서인지 여인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 상(李 相) 서명이 이 제 (李 弟)로 바뀐다.[1)]

펜으로 글씨를 쓰듯 떠오르는 오프닝 타이틀 **지하련**

씬 2. 도쿄 OO극장 / 밤

자막-1930년
도쿄 학생 극예술좌에서 준비한 공연이 막 끝난 극장. 조명이 밝혀진다. 관객석에서 배우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지하련.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지하련의 시선을 따라간 곳엔 여자 주인공을 연기한 최정희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어설프게 서양 옷을 흉내 낸, 기모노에 가까운 붉은 드레스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거린다. 밭은 숨을 내뱉으며 마지막 인사말을 시작하는 최정희.

최정희 *모자란 공연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낮에 미카와 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해요. 밤이 되면 이 무대 올라 배우 최정희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불행했어요. 무대 위 나날은 눈을 가린 채 줄을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거든요.*

양팔을 벌리고 줄을 타는 시늉을 하는 최정희.

최정희 (연극 톤으로) 이다음 발걸음이 과연 '줄'일까

---

1) 이기환, 「'너의 목덜미가 좋고'…시인 이상의 연애편지, 여성이 여성에게 쓴 거였다」, 경향신문, 2019.10.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20500001&code=960100#csidxe3f6641292cd872ac9b31201f6ef6ae,, 접속일: 2019.11.22.
이상이 최정희에게 보낸 연서로 오인되었던 편지는 사실 지하련이 최정희에게 보낸 편지였다. 이상의 서명이 지하련의 서명과 비슷한 형태였으므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이다.

몸을 왼쪽으로 기울인다.

최정희 '허공'일까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최정희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허공을 밟을 거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수천 번은 들었지요. 구라파의 어떤 여인은 호기심에 못 이겨 고통이 담겨 있는 상자를 열었다고 해요. 바보같지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관객석을 둘러보며) 아니요, 그래도 인간은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요. 인생에는 상자를 열어야 할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자를 열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관객석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다. 박수치는 관객들. 감동한 듯 점점 더 크게 박수치는 지하련.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하련의 친구 임화와 지하련의 제자 덕우가 웃는다.

씬 3. 도쿄 OO극장 밖 거리/ 밖 / 밤

공연장을 빠져나오는 최정희.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아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최정희를 부축하려 반대쪽 손까지도 잡는다. 돌아보니 얼굴이 발개진 지하련이 있다. 얼떨결에 두 손을 다 잡게 되어 민망한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놓는다.

지하련 정희님 놀라셨죠? (숨을 고르고) 전 …… 오늘 극을 본 사람이에요.
최정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련 어제도 봤어요.
최정희 두 번이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숙여 인사하는 최정희.

지하련 그제도요.
최정희 (놀란 듯) 네?
지하련 일주일 전에도 봤어요.
최정희 부끄럽네요. 이토록 작은 극을…… 여러 번 보러 와주신 이유가 뭔가요?
지하련 맑아서요, 그리고 밝아서요.
정희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딴 세상에 와있는 것 같았어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의 정희님을 보면 볼수록 정희님이 받아들인 세상이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니 또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고.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지하련. 할 말이 생각났는지 갑자기 말을 끊는다.

지하련 아! 그래서 다음 연극은 언제 하시나요?
최정희 아쉽게도 제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조선에서도 연극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지하련　네? 정말이에요? (풀 죽은 목소리로) 그럼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연극을 하시든 안 하시든 행복하게 살기.
최정희　네?
지하련　정희님이 절 행복하게 해주신 만큼 정희님도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갑자기 구벅 인사하는 지하련, 돌아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임화와 덕우에게 달려간다. 잊지 않으려는 듯 지하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정희.

덕우　선상님, 어데 다녀왔습니까?
임화　공연이 그리 좋았나? 우리를 이리 내팽겨 치고 달려갈 정도로.

지하련은 어서 가자며 두 사람의 팔짱을 낀다.

지하련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빠는 모를 거야.
임화　뭐가 그리 좋았어? 난 모르겠던데.
지하련　너같이 냉랭한 사람은 몰라.
임화　아이고
덕우　새임, 아즈씨 빨리 가요. 저 추워요.
지하련　그래, 집까지 데려다 줄게. 오늘도 아버지 늦게 오셔?
덕우　네 오늘도 안 온다 카더라고요.
지하련　어서 가자.

동경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세 사람.

임화　지원금은, 이제 안 들어오는 거냐?
지하련　조선에서 자금이 안 들어온 지 꽤 됐다. 연줄이 없는 건지 더 이상 줄 돈이 없는 건지.

지하련이 얘기하는 도중, 지나가는 여인들을 흘끔거리는 임화.

지하련　상조 오라비 말론 신간회 활동도 계속할지 모르겠다 하던데. 사정이 그러니 이런 단체에 보낼 돈이 남아도나.
임화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진심이야?
지하련　(한숨 쉬며) 사글세도 못 내서 내달이면 나앉아야 할 판이야. (덕우를 보며) 애들이 불쌍하지.

그러곤 덕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임화　그러지 말고 나랑 조선으로 돌아가자.
지하련　뭐, 조선? 무슨 소리야, 아부지가 어떤 마음으로 여길 보냈는데.
학교 졸업하기 전엔 못 가, 아니 안 가.
덕우　선생님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지하련　내가 어딜 간다 그래.

덕우의 손을 잡고 임화를 앞질러가는 지하련.

씬 4. 근우회 동경지부 산하 건물 / 낮

칠판에 한글을 적고 있다. 여댓 살 정도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칠판에 적힌 글씨를 따라 쓴다.

지하련　우리-나라
아이들　(큰 소리로) 우리-나라!
지하련　조선
아이들　(큰 소리로) 조선!

시선을 옮기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는 지하련.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

지하련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없더라도, 이거 하나는 명심하자. 그 누구도 너희를 헤치게 해서는 안 돼. 말로 글로 칼로 너희를 지켜 내거라.
학생1　정말 내일부턴 여기 못 와요? 왜요?
지하련　그래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야. 우리까지 돌봐주기엔 조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란다. 너희들이 잘 커서 조선을 돌봐줘야 한다. 보듬어 줘야 해.
학생2　(울먹이며) 선생님 가지 마세요.
덕우　가지 마세요.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
cut to
노을 진 창밖 풍경, 아이들이 떠나간 교실엔 덕우만 남아 있다. 덕우에게 다가가는 지하련.

지하련　오늘도 데려다 줄까?

지하련의 손을 잡는 덕우. 고개를 끄덕인다.

씬 5. 동경 거리 / 밖 / 저녁

신기한 것으로 가득 차있는 거리. 덕우는 잡고 있던 지하련의 손을 놓고 뛰어다닌다.

지하련　덕우야!

멀리 가버리는 덕우. 지하련이 쫓아간다. 덕우가 장난을 치려는 듯 빠르게 도망간다.

덕우　선상님! 선상님은 저보다 느리지요? 이렇게 못 뛰지요?

한국말로 신나게 소리치는 덕우. 그러다 행진하는 군인들의 행렬과 부딪힌다.

군인　　*이 버러지 같은 게!*

군화발로 덕우의 머리를 내리친다. 반항 하지 못하고 오래된 나무처럼 쓰러지는 덕우.

지하련 덕우야!!!!!!!!!

덕우를 살피는 지하련. 하염없이 아이를 부른다. 반응 없는 아이의 몸. 지하련은 맨몸으로 순사에게 달려든다. 그때 임화가 나타나 지하련을 막는다.

지하련　이거 놔! 저 놈을 찢어죽일 거야!
임화　　현욱아, 제발…… 제발 그만해라.

울부짖으며 임화를 때리는 지하련. 순식간에 지나간 행렬. 군대가 떠난 거리엔 그들이 일으킨 모래 먼지만 황량하게 남아 있다. 임화는 몸부림치는 지하련을 부둥켜안는다.

임화　　정신 차려라, 현욱아. 잘못하다간 여기서 다 죽어.
지하련　조선으로 가자…… 돌아가자……. 더 이상 학교 뒤에 숨지 않을 거야. 오늘을 잊지 않을 거다.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덕우 죽인 일본 놈들, 갈기갈기 찢어 줄 거다. 불쌍해서 어째, 가엾어서 어째…….

암전, 울부짖는 지하련의 목소리만 계속된다.

씬 6. 조선 야마토 제사공장 / 새벽

[빠른 템포의 타악기– 씬 6, 7, 8]
자막– 조선
출근하는 여공들. 일할 준비로 부산스러운 가운데 지하련이 끼어 있다. 비장한 표정으로 일을 시작하는 지하련.

씬 7. 조선 야마토 제사공장 기숙사 / 늦은 밤

촛불에 의지해 여공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 지하련.

씬 8. 근우회 전국대회 / 밖 / 낮

관중들 앞에서 일본에 대항할 방법에 대해 연설하는 지하련.

씬 9. 조선 야마토 제사공장 앞 사거리 / 해질녘

자막 – 9년 후, (1939년) 경성

신식 양복을 입고, 왁스로 잘 넘긴 머리를 한 채 벽에 기대어 있는 임화.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고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거리의 여자들은 임화를 흘끔흘끔 훔쳐보며 지나간다. 건너편으로 퇴근하는 여공들의 무리가 보인다. 그 속에서 지하련을 발견한 임화는 손을 흔든다.

임화　　여보!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임화에게 달려오는 지하련.
임화　　왜 이렇게 안 나와?
지하련　울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난들 알았나. 어쩐 일이야?

투덜거리는 지하련, 하지만 반가움을 감출 수 없는지 입꼬리는 올라가 있다.

임화　　김유영 감독 알지? 나랑 <유랑>이랑 <혼가> 찍었던.
지하련　아 오빠 배우할 때? 기억난다.
임화　　감독님이 갑자기 초대해 주셨어. 부부 동반 모임인데 너 끝나는 김에 같이 출발하면 좋을 거 같아서.

씬 10. 전차 내부 / 해질녘

전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씬 11. 김유영의 집 거실 / 해질녘

세간들이 꽉 채워져 있는 집 내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소담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좁은 거실에는 책장이 위태롭게 서있고, 김유영의 영화 포스터가 첩첩히 겹쳐 붙여져 있다.
김유영은 신문을 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고 그 사이로 최정희가 찬거리들을 옮긴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마중 나가는 두 사람.

김유영　이게 얼마만이야?!
임화　　감독님!

차례로 들어오는 지하련과 임화. 최정희를 알아보고 놀란다.

지하련　정희님?
최정희　네? 저를 어떻게 아시죠?
김유영　두 사람 아는 사이였나요?
지하련　동경에 계실 때, 연극 하시지 않으셨나요? 조선으로 가신다고 해서 몹시 슬퍼했었는데, 이리 만날 줄 물랐습니다.
최정희　동경이라면 오래 전 일인데 저를 기억해주시다니요,
임화　　제 안사람이 그날 정희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질투가 날 정도로요.

부끄러운지 임화를 툭툭 치는 지하련.

김유영　다들 이런 연이 있었다니, 세상일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려! 하하하. 일단 앉으십시다. 앉아서 더 이야기 합시다.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는 최정희. 음식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두 사람.

임화　(최정희를 보며) 정희님이 고생하셨겠습니다. 노래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음식도 노래만큼이나 잘하시네요.
최정희　아닙니다.
김유영　정희 음식 솜씨가 조선 제일이지 아마.
지하련　정희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임화　그때 서울로 돌아오시고 감독님과 만난 겁니까?
최정희　네, 제가 유영 씨 극의 배우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선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궁금한 듯 정희를 쳐다보는 임화와 지하련.

김유영　(양팔을 벌린 채 과장된 톤으로) 당신이 주역을 맡아주시오!

끼어드는 김유영, 모두 웃는다.

최정희　처음엔 합격했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청혼이었지만…….

유쾌한 분위기의 식탁. 김유영이 임화와 지하련 앞의 빈 잔을 채운다.

최정희　임화 씨 부인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하련　이가의 현욱이라 합니다.
최정희　현욱님,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하련　다시 뵐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김유영　자자 우선 먹읍시다.

숟가락을 드는 네 사람. 훈훈한 분위기.

씬 12. 김유영의 집 바깥/ 저녁

해가 져 어둑어둑해진 골목, 밥 짓는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로 저마다 왁자지껄하다.

씬 13. 김유영의 집 거실 / 저녁

술을 마시고 있는 네 사람. 취한 듯이 얼굴이 발갛다.

지하련　정희님은 소설을 쓰신다고요?
최정희　네, 재작년에 <흉가>라는 책을 냈었지요.
임화　　정희님 소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글과 닮으셨어요.
최정희　부끄럽네요, 못난 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김유영　못난 글이라니 당신이 얼마나 잘 쓰는데, 내 각본보다 낫다니까.
지하련　저도 정희님 글 읽어보고 싶어요.

책장으로 가 글 묶음집을 뒤적이는 최정희, 한 뭉치를 가져와 지하련에게 준다.

최정희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신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하련　어머 감사해요. 계속 받기만 하네요.

씬 14. 김유영의 집 바깥/ 밤

돌아가는 지하련과 임화를 배웅하는 최정희, 김유영.

지하련　다음에 만날 땐, 정희라고 불러도 됩니까?
최정희　좋아요, 저도 다음엔 현욱이라 부르겠습니다.

씬 15. 전차 안 / 밤

붐비는 전차 안,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지하련과 임화.

지하련　당신 감독님이랑, 정희님 두 분이 참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야.
임화　　감독님이 여간 걸걸하신 분이 아닌데, 집에서는 또 다른가봐.

씬 16. 김유영의 집 거실 / 밤

크게 쾅- 하는 소리.
김유영이 최정희를 밀치고, 책장이 넘어진다. 작게 신음하는 최정희.

김유영　나 때문에 형무소 갔다고 내 말이 우습나봐?
최정희　또 무슨 소리예요, 얼토당토않은 말 하지 말아요.
김유영　그래 사내가 돼서 나 살겠다고 마누라 이름이나 팔았으니, 내가 얼마나 하찮겠어.

거나하게 취한 김유영은 비틀거리며 최정희를 때린다. 익숙한 듯 맞고 있는 최정희. 넘어진 채로 몸을 추스르지 못한다. 김유영이 일격을 가하자 바닥에 쓰러진다. 몸에 밀려 <흉가> 뭉치가 구겨진다.

최정희의 볼에 난 상처 클로즈업.

씬 17. 예지동 천일 약방 앞 / 낮

다음날, 약방을 나오는 최정희, 왁자지껄한 시장에서 홀로 외로워 보인다. 누군가 최정희의 손을 잡아챈다. 9년 전, 극장 앞에서 손을 잡혔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지하련　정희야!

돌아보는 최정희의 얼굴을 보고 흠짓 놀라는 지하련, 이내 최정희의 소매를 걷어낸다. 붉고 푸르고 노란 멍 자국.

지하련　이게…… 무슨 일인 것이냐?

씬 18. 등나무 밑 / 낮

인적 없는 거리, 바닥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지하련은 최정희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고 있다. 따가운지 얼굴을 찡그리는 최정희. 나무 사이로 햇살이 미친다.

지하련　더러운 거, 아픈 거, 어린 생각 모두 닦아내라고 아버지가 주신 손수건이야.
최정희　부럽네,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최정희를 가만히 바라보는 지하련.

최정희　내 아비 되는 사람은 전국팔도 환자란 환자를 다 치료해 주고는 어미 마음에 대못을 박고 사라 졌다. 시랑 노래로 속을 썩이더니 첩살림을 차려서 그냥 떠나버렸지.
피는 못 속이는지 나도 노래를 하고 있네. 내 눈, 내 코, 내 입술, 아비를 빼다 박은 날 볼 때마다……
(울먹거리며) 아비를 닮기 싫어서, 남편 되는 사람이 절 때려도 참고 또 참아. 나는 한 가정의 멋진 부인으로 남고 싶어서, 가정을 깨는 건 몹쓸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지하련　울지 마. 정희는 누굴 닮은 게 아니라, 희라서 그런 거야. 그냥 너라서.
최정희　참 듣기 좋은 말이다.
지하련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 너같이 주인공을 맡는 사람들은 꼭 행복해져.

지하련의 단호한 눈 클로즈업 후 서서히 어두워지는 화면.

편지 인서트

- 희야, 너 하늘같은 눈을 가진 사나이를 구경할래?

씬 19. 동대문의 어느 학교 담장 / 낮

까치발을 하고 학교 담 너머를 훔쳐보고 있는 최정희와 지하련. 담 안에는 모시 두루마기를 걸친 서정주가 학생들에게 체조를 시키고 있다.

지하련　저 분이 미당 선생님이셔.
　　(장산스럽게) 파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 뿐이었다…….
최정희　(지하련을 보며)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2]

서정주가 담장 쪽을 바라보자 놀라며 최정희를 때리는 지하련, 급하게 숨는 두 사람.

insert. 편지를 쓰는 최정희의 손

씬 20. 전농동 지하련의 집 마당/ 낮

평상 위의 두 사람. 지하련은 최정희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 날은 덥고 하늘은 파랗다. 하늘의 푸른빛에 지지 않으려는 듯, 퍼져 있는 풀잎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푸르다.

사각 사각 눈썹 깎는 소리.

아슬아슬한 최정희의 손길이 불안한지 조금 떨고 있는 지하련. 최정희는 행위에 열중하느라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결국 정희의 손을 잡고 웃음을 터뜨리는 지하련.

지하련　희야 너 정말 바보같아
최정희　뭐?

최정희의 표정을 과장해서 흉내 내는 지하련. 최정희는 잡고 있던 칼로 지하련을 위협한다. 평상에서 뛰어 내려 도망치는 지하련. 허둥대며 뛰어다니다 그만 바가지를 밟고 넘어진다.
물바다가 된 마당.
주저앉아 깔깔 웃는 두 사람.

[해금, 가야금 등 전통 현악기가 사용된 연주곡]
insert. 편지를 쓰는 손 클로즈업

씬 21. 단성사(영화관)

영화를 보고 있는 두 사람 화면 속 신기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두 사람.

---

2) 서정주, '화사집'(花蛇集)

insert. 편지를 쓰는 손 클로즈업

씬 22. 경성 시장 거리

북적북적한 길거리, 좌판대를 구경하는 두 사람. 붉은 꽃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책갈피를 들고 있는 최정희. 그런 최정희를 보는 지하련.

insert. 편지를 쓰는 손 클로즈업

씬 23. 작은 뒷산

보자기를 깔고 앉아 간식을 먹는 지하련, 경단을 하나 집어 엎드려서 글을 쓰고 있는 최정희의 입에 넣어준다. 최정희 주변의 책에는 시장에서 본 책갈피가 껴져 있다. 글을 쓰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최정희. 지하련은 이를 보고 최정희의 입꼬리를 만진다. 화들짝 놀라는 최정희

지하련　희야, 그렇게 재밌어?
최정희　재밌지. 난 나만 생각하면서 글을 써. 조선인이 아닌 척, 누군가의 어미나 부인이 아닌 척, 숨어서 내가 하고픈 말을 글로 쓰는 거야. 펜을 놀릴수록 내가 점점 나 같아지더라.
지하련　그렇담 <흉가>도 네 얘기야?
최정희　그렇지, 난 배운 게 없어서 내 얘기밖에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앞의 종이를 가리키며) 기-인 일기 같은 거야.

지하련의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쥐어주는 최정희.

최정희　그러고 보니 현욱이 네 얘기가 궁금하다. 너도 한 번 써볼래?

최정희가 준 펜을 꾹 잡는 지하련, 펜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의 손 클로즈업.

씬 24. 지하련의 방

책상에 앉아 있는 지하련, 종이를 앞에 두고 최정희가 준 펜을 쥐고 있다.
한숨을 쉬더니 한 자 한 자 천천히 적어가는 지하련.

웨 이리 밤이 서늘할까. 벌써 가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써 가을이 오다니 여름이 이처럼 짧을 수가 있을까. 그 뜨겁고 무르녹고 풍족한 여름이 이처럼 짧을 수가……. 그러나 또 혹 가을은 아직 제대로 먼데 나 혼자서 나만이 가을을 늣기는지도 모른다.[3]

3) 이현욱(지하련), 「日記」, <<女性>>, 1940.10.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지하련의 손.
늘어가는 지하련의 종이.

씬 25. 야마토 제사공장

변함없는 여공들, 비어있는 지하련의 자리.

씬 26. 지하련의 방 / 밤

어두컴컴한 방, 등불만이 밝혀져 있다. 키스하고 있는 지하련과 임화. 임화의 손이 지하련의 옷 너머로 향한다. 거칠어지는 숨소리, 천천히 바닥에 깔린 요 위로 눕는 두 사람.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한 지하련, 임화를 저지한다.

지하련 잠깐만요!

벌떡 일아나 책상으로 향하는 지하련, 방 안 스위치를 켠다. 예정에 없던 빛이 방 안을 채우자,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임화 (언짢은 듯) 뭐하는 거야?
지하련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임화 꼭 지금 써야 해?
지하련 네 중요한 거예요.

책상 위 굴러다니는 펜을 잡아 종이에 휘갈겨 쓴다.
한숨 쉬는 임화, 담뱃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방을 나간다.
아랑곳 않고 글쓰기에 열중하는 지하련.

씬 28. 김유영의 집 근처 골목 / 밤

등이 밝혀져 있는 골목, 휘파람을 부르며 걸어가는 김동환. 비명 소리가 들린다, 흠칫 놀라 멈춰 선다. 그리곤 다시 걸어간다.
열 걸음쯤 걷다 다시 뒤돈다. 소리가 들린 쪽으로 향하는 김동환.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씬29. 김유영의 집 앞 골목 / 밤

양철이 깨지는 소리, 우는 아이의 소리, 그리고 남녀의 고함 소리.

최정희 제발 그만 하란 말예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울음소리.

김동환　뭐? 이 우라질 년이! 오늘 끝을 보자고.

유리 깨지는 소리와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최정희　꺄악!

담벼락 앞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김동환. 그때 문이 벌컥 열린다. 찢어진 저고리를 가까스로 추스르며 도망치는 최정희. 비틀거리며 뛰어오다 그만 발을 헛디딘다.
넘어지려는 최정희를 잡아주는 김동환. 동시에 집 안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려온다.
이윽고 김유영이 씩씩거리며 튀어나온다.

김유영　이년이 어딜 갔어?

벽 사이 홈에 몸을 숨기고 있는 두 사람. 벽에 붙어 있는 노박덩굴이 두 사람을 가려준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최정희의 흔적을 찾으려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김유영.
김유영이 사라지자 몸을 숨기고 있던 최정희와 김동환이 밖으로 나온다.

김동환　괜찮으십니까?
최정희　네, 일단 빠져나왔으니 됐습니다.

찢어져서 맥없이 내려가는 저고리를 부여잡고 있는 최정희. 최정희의 어깨에 시선을 보내곤,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덮어 준다.

김동환　몸도, 마음도 힘겨우실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감사해요 정말…….
김동환　저는 <삼천리>사(社)에서 일합니다. 오늘처럼 뛰쳐나오고 싶을 때, 여기로 오세요.
최정희　네?
김동환　많은 걸 주진 못해도, 일할 수 있는 책상 하나는 줄 수 있으니까요.

고개 숙여 인사하곤 뒤돌아 걸어가는 김동환.

최정희　저기요!

뒤돌아보는 김동환.

최정희　삼천리사에 찾아가 누구를 보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김동환　파인을 찾아왔다 하면 됩니다.
최정희　파인…….

두 글자를 되뇌는 최정희. 무언가를 결심한 듯하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최정희. 닫힌 대문 뒤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디졸브.

씬 30. 김유영의 집 앞 골목 / 낮

지하련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대문을 두드리는 지하련의 뒷모습. 몇 번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다.

지하련　희야! 거기 없니? 희야!

추욱 추욱, 느린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지하련　(반가운 목소리로) 희야! 왜 편지에 답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김유영　뭐요?

열린 문 사이로 추레한 몰골의 김유영이 서있다.

지하련　안녕하세요, 혹시 정희…… 최정희 없습니까?
김유영　(빈정대며) 당연히 없지. 그년이 지멋대로 남편을 갈아치웠는데.
지하련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김유영　내 조금 혼쭐을 내줬기로서니…… (경멸스럽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김동환인지 뭔지 하는 작자한테 도망쳤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지하련.

김유영　그 재수 없는 년 다신 찾아오지 마시오.

갑자기 기침을 하는 김유영. 점점 기침이 심해지자 가차 없이 대문을 닫는다.
풀이 죽어 돌아서는 지하련, 그때 바닥에서 무언갈 발견한 듯 몸을 구부린다.
손에 들린 건 지하련이 최정희에게 선물로 준 책갈피.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붉은 꽃은 어느새 얼기설기 헤져 있다. 헤진 부분을 손으로 보듬어주는 지하련.
너덜너덜한 꽃 클로즈업.

씬 31. 김동환의 집 / 낮

붉은 작약 다발을 든 김동환의 손 클로즈업.

최정희　어머, 이게 다 뭔가요?
김동환　당신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생생하고, 붉고, 화려하고.

꽃다발을 최정희에게 건넨다. 활짝 웃으며 받아 드는 최정희. 귓가가 조금 붉어져 있다.

최정희 (수줍은 듯)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될지요.

최정희를 지그시 바라보는 김동환. 천천히 다가간다. 키스하는 두 사람.

씬 32. 지하련의 방 / 낮

반짇고리를 뒤적거리는 지하련, 최정희의 책갈피를 손수 기운다.
책상 위에는 지하련이 쓴 글들이 여러 장 흩어져 있다. 그 옆으로 적혀있는 김동환의 집주소.
콧노래를 부르는 지하련.

씬 33. 경성 시장 거리/ 낮

지하련과 최정희가 책갈피를 샀던 시장. 총검을 찬 순사들이 시장을 꽉 채우고 있다. 순사들을 피해 조심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물건을 팔려 크게 소리치는 상인들을 찾아볼 수 없다.

씬 34. 김동환의 집 / 낮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최정희와 김동환. 최정희의 밥 위에 조기 뼈를 발라 올려준다.

김동환 이번 주말에 아내를 만나러 가야할 것 같아. 아이가 날 찾는다고 하니.
최정희 하긴, 집에 다녀오신지 오래 되었으니까요.

풀이 죽은 듯한 최정희. 바닥에 있는 서류 봉투를 꺼내든다.

최정희 뭔가요?
김동환 제의가 들어왔어. 작은 글을 써서 조선인들에게 발표만 한다면 우리 삼천리사가 쓰는 모든 글을 검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최정희의 눈치를 보는 김동환.

김동환 이번엔 자네가 써보면 좋겠는데. 소설을 잘 쓰니까.

최정희는 조금 당황한 듯하다.

최정희 어떤 글인데요?
김동환 그냥 지원병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류의 글이면 돼.
최정희 전쟁터에 조선인들을 떠밀라는 말씀인가요?
김동환 우선 일본인이 믿을 만한 생활태도를 보이는 게 우선이야. 나랑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

지 않아?

고민하는 듯한 최정희.

최정희　절 버리지 않을 거죠?

김동환은 고개를 끄덕인다.

씬 35. 경성 거리 / 낮

어수선한 경성 거리, 쏜살같이 지나가는 전차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절벽을 건너듯 선로를 뛰어넘어간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지하련. 손에는 최정희의 책갈피를 들고 있다. 노란색 실로 기워 붉고 노란 빛깔로 더 화려해진 책갈피.
어쩐 일인지 한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소란스럽다.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는 지하련.
가까이 가보니 순사들과 군중들이 뒤섞여 있다. 연단 위에 서있는 최정희. 붉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연설을 하고 있다.
최정희를 발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하련.

최정희　반도의 모친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반도의 청년이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연설 내용을 듣자 지하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환호하는 군중들. 순사들의 기세 때문인지도, 벌떼같이 모인 주위 사람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최정희　어머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함성소리를 뒤로 하고 연단에서 내려오는 최정희. 그때 고함 소리가 들린다.

지하련　네가 말한 글이 이런 거였니?

지하련을 발견하고 굳어버린 최정희.

지하련　희야 너 정말…… (울먹이며) 이런 더러운 짓을 하려고 글을 썼던 거야?

순사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순사들이 총검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긴장한 최정희.

지하련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정말이냐?

주먹을 쥐는 최정희.

최정희　그래 내 글은 처음부터 이거였다. 너는 그냥 하던 대로 네 인생이나 살아!

지하련에게 소리치는 최정희. 함께 있던 노천명이 최정희를 데리고 떠난다.

주저 앉는 지하련. 손에 있던 책갈피를 놓친다. 해산하는 군중들에게 밟혀 형체를 잃어가는 책갈피. 지하련은 책갈피를 허망하게 바라본다.

씬 36. 작은 뒷산 / 밤

지하려과 자주 왔던 뒷산에 오른 최정희.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는 걸음. 풀숲에 털썩 주저앉는다. 붉은 한복이 답답한지 치마를 헤치고 편하게 앉는다.
지하련에게서 온 편지들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는 최정희.
"어제 희야가 보내준 편지 읽고, 나느 참 다행하고 기뻤소. "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다행히 희야는 일직 잣다고 이제 말하고 또 이렇게 밝고 다정한 편지 주어 나는 참 즐겁소."[4]

미약한 웃음은 곧 홍수 같은 울음으로 변한다. 미안함인지 죄책감인지 불안함인지 모를 감정들을 풀어낸다.
한참을 울고 나서 편지를 땅에 버린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그곳을 벗어난다.

씬 37. 지하련의 집 / 낮

평상에 멍하니 앉아 있는 지하련. 핏기 없이 말라 있다. 의미 없는 발동작만 반복하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임윤예　현욱아! 안에 있니?

정신을 차리는 지하련, 벌떡 일어선다.

지하련　윤예니?

대문을 열자 지하련의 친구인 임윤예가 서 있다.

지하련　어쩐 일이야?
임윤예　(조금 주저하며) 그냥…… 오랜만에 네 얼굴도 볼 겸 들렀지. 들어가도 되지?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지하련.

---

4) 지하련 전집 242쪽.

cut to

임윤예의 잔에 오미자차를 따르는 지하련. 청아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퍼진다. 차를 따르며 지하련의 마른 손목이 떨린다.

임윤예　어머, 너 왜 이렇게 핼쑥해졌니? 팔목 좀 봐.
지하련　그래? 요새 고민이 좀 많았거든.
임윤예　(뭔가 안다는 듯) 설마…… 너도 아는 거니?

아무 말 없이 임윤예를 바라보는 지하련.

임윤예　글쎄, 딸까지 있을 줄은 몰랐다니까. 역시 얼굴값 하는 게지.
지하련　뭐?
임윤예　아니 네 바깥사람 말야. 그 얘기 아니었어?
지하련　딸이라니, 무슨 소리야?

임윤예를 다그치듯 묻는 지하련.

임윤예　모르고 있었구나. 경성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는데.

불안하게 흔들리는 지하련의 눈동자.

임윤예　임화가 두 집 살림을 한다고. 요새 ●●동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거기 새 부인이랑 애까지 딸려 있다나 뭐라나.
지하련　뭐? 너 그 집 어딘지 알아?

씬 38. ●●동 집 앞 / 낮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지하련. 문 열기를 주저한다.

[회상]
최정희　아니요, 그래도 인간은 상자를 엽니다.
임윤애　임화가 두 집 살림을 한다고
insert　임화의 웃는 얼굴.
최정희　그 안에 뭐가 들었든지요.

결심한 듯 조용히 문을 연다. 한 뼘도 안 되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임화와 여인 그리고 아이. 여느 가족의 모습처럼 행복해 보인다.
주저앉는 지하련.
거리로 달려 나가 구역질 한다. 속에 있던 모든 것을 토해내려는 듯. 눈물과 콧물이 섞여 엉망이

된 지하련의 얼굴.
지하련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씬 39. 김동환의 집 / 낮

급하게 뛰어오는 지하련.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린다.

지하련　희야, 정희야-!

믿을 수 없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최정희.

최정희　현욱이니?

최정희가 문을 열자마자 얼빠진 듯 중얼거리는 지하련이 보인다.
지하련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
최정희　뭐?

최정희의 손을 잡는 지하련.

지하련　희야, 난 억울해, 분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야…….
최정희　현욱아…….

최정희 또한 지하련의 손을 잡는다.

지하련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 조선의 여인네란 무엇이란 말이냐.

지하련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최정희는 지하련의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낸다.

지하련　네 말로 말해줘, 네 글로 말해줘. 10년도 넘게 네 행복을 바라왔던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최정희　좋아. 내가 네 얘기를 쓰면 되는 게지?

고개를 끄덕이는 지하련.

최정희　내가 최선을 다해 써볼게. 나 글 쓰는 건 누구보다 잘하잖아.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 언뜻 절친했던 어느 시절과 비슷해보인다.

cut to

안에서 열리는 방문, 잠에서 깬 듯한 김동환이 최정희 쪽으로 다가온다.

김동환　누가 왔다 갔소?
최정희　……옛 벗이 왔다 갔습니다.
김동환　당신 벗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한 번 소개해줘.
최정희　아마 앞으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서로 너무 달라져버렸거든요.
김동환　슬픈 일이야, 친구를 잃는다는 건.
최정희　먼 훗날 분명히 후회하겠지요.

씬 40. 경성 어느 책방 / 낮

최정희의 『인맥』이 가판대에 나와 있다.
책을 집는 손, 시설을 옮겨 보면 긴장한 모습의 지하련이 있다.

씬 41. 지하련의 방 / 낮

지하련　(중얼거리며) 정숙치 못한 여자라고 꾸짖어도 좋습니다. 윤리와 도덕에 벗어난 일인 줄……

점점 굳어지는 지하련의 표정. 지하련의 목소리가 최정희로 변한다. 최정희의 얼굴 교차.

최정희　…… 나 자신이 더 잘 알면서도

곧이어 최정희는 지하련이 본 임화의 둘째 부인으로 변한다.

둘째부인　기인 세월을 한 사람의 정숙한 여인이 되고저?

헛웃음을 터뜨리는 지하련.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임화. 임화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지하련.

지하련　딱 한 달만이십니다.
임화　일이 많았어.
지하련　그래 일이 많았게죠. 한 몸으로 두 집 살림 하려면 일 많지요. 고생하셨네 그려.
임화　부인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지하련　네 신경 쓰기 싫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보아요. (경멸스럽다는 듯) 당분간 당신 얼굴 못 보겠습니다. 구역질이 나서요.
임화　뭐?

책상 위에 있던 임화의 사진을 던지는 지하련. 『인맥』 또한 임화에게 던진다.

지하련　당장 나가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임화　당신 분명 후회할 거야.

가차 없이 나가버리는 임화.

씬 42. 조선 야마토 제사공장 / 낮

다시 공장에 나가는 지하련,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한다.

씬 43. 조선 야마토 제사공장 기숙사/ 밤

밤에는 여공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그 이후에 자신의 침대 맡에서 글을 쓰는 지하련.

씬 44. 경성 거리 / 밤

시간이 흘러, 눈이 내리는 경성 거리. 한 가족이 지나간다.

아이　　어머니, 아버지 이거 보세요! 눈이 내려요!
아버지　이게 올해 첫 눈인가?
어머니　그렇네요. 시간 참 빨라요.

눈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아이,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

씬 45. 지하련의 집 / 밤

밥상에서 홀로 저녁밥을 먹고 있는 지하련. 잡곡밥과 시래기 된장국, 감자볶음, 동치미가 놓인 소박한 밥상이다. 밥을 먹은 후에 크게 트림을 한다.

상을 치우고, 책상으로 가 앉는다. 책상에 놓인 『결별』. 지하련은 책의 지은이로 '이현욱'이 아닌 '지하련'이라는 필명을 적는다. 그리곤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바닥을 닦고, 책장을 정리한다.
툇마루로 나가 쌓인 먼지를 닦아낸다.
신발을 신는다. 마당으로 나가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한다.
허리가 아픈지 비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
방에서 겉옷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는 지하련.

씬 46. 어느 산길 / 밤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가는 지하련 풀샷.

지하련　(나래이션) 이런 말 허면 우슬지 모루나, 그간 당신은 내게 크다란 고독과, 참을 수 없는 쓸쓸함을 준 사람입니다. 나는 닷시금 잘 알 수가 없어지고 이젠 당신이 이상

하게 미워지려구까지 합니다.

지하련의 발 클로즈업, 새가 날아가는 모습, 이어지는 지하련의 옆모습.

지하련 (나래이션) 정말 나는 당신을 위해- 아니 당신이 글을 썼스면 좋겟다구 해서 쓰기로 한 셈이니까요

지하련의 얼굴 클로즈업

지하련 (나래이션) 정희야 나는 이제 너를 떠나는 슬픔을, 너를 이즐 수 없어 얼마든지 참으려구 한다.[5]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가는 지하련의 뒷모습. 자신이 남긴 발자국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듯 힘찬 발걸음이다. 순백의 설원에 대비되는 그녀의 흑단 같은 머리는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시킨다.
곧 점이 되어 사라지는 지하련. 발자국만이 그녀가 사라진 곳을 가리키고 있다.
수만 개의 눈발이 나리지만 땅에 닿을 땐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감히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설움을 감내하겠다는 듯, 소름끼치는 침묵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씬 47. 종로 한청韓靑 빌딩(문맹[6] 사무실) 앞/ 밖 / 낮

자막- 1950년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거리, 빈 상점들이 즐비하다. 어디론가 쫓기는 듯 불안한 기색의 행인들. 한청 빌딩에서 한 남자가 나온다. 길을 걷던 정희, 건물에서 나오는 남자를 보곤 멈춰 선다. 반가운 듯 남자에게 달려간다.

최정희 임화 씨!

돌아보는 임화. 최정희를 알아보곤 꾸벅 인사한다.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 최정희.

최정희 현욱이 잘 있어요?
임화 잘 있습니다.
최정희 요즘도 글 잘 씁니까?
임화 …… 잘 씁니다.

더 말을 하려다 멈추고 마는 최정희, 임화는 이내 인사를 하곤 발길을 돌린다. 임화의 등 뒤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손짓을 하려다 그만두는 최정희. 걸어가는 임화를 멍하니 바라본다. 해가 지며 초여름의 마지막 햇살이 최정희의 얼굴에 비친다. 빛을 받은 최정희의 얼굴 클로즈 업.

---

5) 1940년, 지하련이 최정희에게 쓴 육필서한.
6) 문건과 예맹을 뭉뚱그려 조선문학가 동맹 얽음.

최정희의 얼굴 위로 지하련의 육필.

지하련 [나레이션] 나는 진정 네가 조타! 웬일인지 모루겟다. 네 적은 입이 조코, 목들미가 조코, 볼다구니도조타! 나는 이후 남은 세월을 정히야 너를 위해, 네가 닷시오기 위해 저 夜空에 별을 바라 보듯 잠잠이 사러가련다……

최정희의 얼굴이 사라지고 화면에 서명(李 弟)이 찍힌다.
엔딩 타이틀 지하련 池河蓮

-完-

■ 참고 문헌

1. 논문

김주현(2019), 「이상 육필 원고의 진위 여부 고증」, 어문론총 제8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허예슬(2019), 「지하련 연구– '여성해방주의'와 '고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2. 단행본

서동수 (2010), 『한국여성작가연구: 최정희·김지연』, 한국학술정보.

서영은 (1984), 『강물의 끝』, 문학사상사.

서정자 편(2004),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사.

최정희, 지하련, 박진숙 역(2011), 『도정』, 현대문학.

3. 인터넷 기사

이기환, 「"너의 목덜미가 좋고"…시인 이상의 연애편지, 여성이 여성에게 쓴 거였다」, 경향신문, 2019.10.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20500001&code=960100#csidxe3f6641292cd872ac9b31201f6ef6ae,, 접속일: 2019.11.22.